

# 광주, 광화문 집회 확진자 9명... 25일 코로나 신규확진 280명

### 수도권 212명...누적확진 1만7천945명·사망 310명 12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 곳곳서 전방위 확산 '비상'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이를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전날보다 확진자가 소폭 늘어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연결 고리로 한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늘어 누적 1만794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66명)에 이어 이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지만, 300명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이날 중순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4일부

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397명→266명→280명 기록하며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총 3175명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열을 넘게 세 자릿수를 이어간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기간인 2월 말~3월 중순(2월 22일~3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8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6명을 제외한 264명이 지역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4명, 경기 63명, 인천 15명 등 총 212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하루를 제외하곤 계속 200명이 넘는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와 지역 내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날 낮 12시까지 모두 875명이 확진됐다. 교회 확진자에서 비롯한 추가 전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관련 확진자도 속출해 전날까지 누적 176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도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9명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경기 용인시 우리 제일교회(182명),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41명), 인천 부평구 갈릴리교회(38명), 서울 관악구의 '무한구(九)관' 관련(25명) 등의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대전과 충남 등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충남 천안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인 순천향대병원 천안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감염이 속출했고, 대전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와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34명, 경기 72명, 인천 1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1명이 나와 이날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56명이었다.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310명이 됐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1.73%다. 이날 0시까지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하루새 212명 증가해 총 3349명에 달했다. 위중·중증환자도 6명 늘어 38명에 이른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97.5% 광주 유흥시설 관련 7100명 검사... 27명 양성

### 광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60만61가구 3924억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광주지역 가구가 9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24일 까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60만 61 가구(3924억원)가 수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광주 전체 지원 대상인 61만5188 가구의 97.5%에 해당한다.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만 5127가구다.

카드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8억8000만원이며,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고용 안정 사업에 쓰인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1만5127가구의 지원금은 기부로 간주된다.

김종호 시 행정부시장은 "지원금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지역 상권과 함께 '착한 소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2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6~16일 상무 유흥업소·피트니스센터·식당 이용자 대상 유흥시설 종사·방문 의무검사... 방역 수칙 위반 12곳 고발

광주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이 7000명을 넘어섰다. <광주일보 2020년 8월 25일자 1면> 25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 마감 시한(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7100명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받은 인원에는 유흥업소 방문자를 포함해 상무지구 피트니스 센터, 식당 등 인근 다른 업소 이용자들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는

5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접객원, 손님, 접촉자 등 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7005명은 음성, 6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12일 유흥시설 관련 첫 확진자(광주 217번)가 나오고 상무지구 유흥시설 종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6일부터 16일까지 방문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무 검사 기간이 끝나고 확

진 판정을 받으려 처벌된다. 진단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고 보고 익명 검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방문자'가 있다고 보고 QR코드 정보, 신용 카드 결제 내용, 수기 장부 등을 확인해 추가 방문자를 찾고 있다. 다만 유흥업소들의 방문자 관리가 부실한 데다가 현금 결제가 이뤄진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현재까지 점검 결과 12곳이 명부 작성 등을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6곳을 고발했고 6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의료계 2차 총파업...비상진료 체계 구축 정부 "대화로 상생 노력"...업무개시명령 시행은 신중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진료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반장은 이어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로서도 공정한 고고민하는 대목"이라며 "가급적 이런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날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서 현재는 의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거듭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진, 수술 등과 인체에 차질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 불안과 격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

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중단하는 하루새 212명 증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26~28일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23일과 24일 각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협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나 양측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의대 학생을 시장·도지사나 시민단체에서 선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반장은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현재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별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장·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만일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을 하게 되면 공정한 부분이 중요하니,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명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 합병 및 주권 제출공고

2020년 8월 24일 개최된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합병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갑"이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과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 등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합병법인 "갑" 주식회사 미래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90 대표이사 진인준  
피합병법인 "을" 주식회사 경동  
전라북도 완주군 상안면 신리로 15 대표이사 구희백  
피합병법인 "병" 주식회사 강동산업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2길 15 대표이사 박종철

서기 2020년 08월 26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반석전력 (법인등록번호 : 204911-0017834)  
소 제 지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9 대표이사 : 손요정  
"을" 상 호 : 주식회사 건우전력 (법인등록번호 : 204911-0013783)  
소 제 지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9 대표이사 : 손정

**분할 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반석전력(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건우전력(이하 "을"이라 함)은 서기 2020년 08월 25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흡수합병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서기 2020년 08월 26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반석전력 (법인등록번호 : 204911-0017834)  
소 제 지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9 대표이사 : 손요정  
"을" 상 호 : 주식회사 건우전력 (법인등록번호 : 204911-0013783)  
소 제 지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9 대표이사 : 손정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 상행안내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창 월성계곡 서출동류 물길드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5일(토)  
▲광주호산회 9월5일(토) 대원사 계곡 피서산행 대원사 들레길,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금당산악회 9월5일(토) 총복 포안산·민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원동식자재 마트 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송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안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정 222-8171	
남구	·남 부 675-5530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울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